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September 2025 Issue | Vol. 6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아세안 이웃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 — 투자위원회(BoI)
— page 1-2
-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떠오르는 반도체 허브 중 하나’
— page 2-3
- 마르코스 “현대 조선소 부활로 필리핀, 글로벌 조선 강국 지위 회복할 것”
— page 3
- 하원 위원회, 부가가치세 인하 제안 검토
— page 3-4
- 재무부, 의회에 핵심 세제 개혁 우선 추진 요청
— page 4-6
- 마르코스, 광업 산업 강화 재정 제도 법안 서명
— page 6-7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7-8

필리핀, 아세안 이웃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 — 투자위원회(BoI) September 03,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아세안(ASEAN)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약정이 2020년 이후 총 2,519억8,000만 페소에 달해, 필리핀에 대한 역내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투자위원회(BoI)가 밝혔다.

무역산업부 장관이자 BoI 의장인 마. 크리스티나 A. 로케 장관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아세안 이웃 국가들과 더 강력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러한 수치는 필리핀이 비즈니스 성장의 거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필리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환영받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Bo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투자 약정의 최대 출처는 싱가포르로, 전체 중 2,459억7,000만 페소를 차지했다. 그 외 주요 투자국은 태국(43억4,000만 페소), 말레이시아(16억5,000만 페소), 인도네시아(1,227만 페소)였다.

산업별로는 약 1,700억 페소가 정보통신 부문에, 742억 페소가 전력 부문에 투입되었다.

BoI 집행이사 에바리스테 M. 카가탄은 “아세안 투자자들의 BoI 승인 프로젝트, 특히 정보통신 및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필리핀이 추진하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및 서비스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 밖의 주요 투자 부문으로는 제조업(55억8,000만 페소), 행정 및 지원 서비스(14억1,000만 페소), 농업·임업·어업(9억3,000만 페소)이 있었다.



PHILIPPINE STAR/ MICHAEL VARCAS

“이들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필리핀 국민들에게 총 15,358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BoI는 밝혔다.

한편 BoI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승인된 총 투자 약정은 580억7,000만 페소에 달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BoI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아세안으로부터의 순 FDI는 9,578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싱가포르가 6,361만 달러, 말레이시아가 3,156만 달러를 차지했다.

앞으로 BoI는 다음 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투자 포럼(ASEAN Investment Forum)에 필리핀이 참여함으로써 역내 투자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5~2030년 아세안 역내 투자 촉진 실행계획(ASEAN Regional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아래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및 저장, 의료기기, 태양광 발전 장비, 역내 공급망 연계 등 투자 준비가 완료된 프로젝트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자국의 높은 생산비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아세안 경제들이 필리핀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Cont. page 2]

필리핀, 아세안 이웃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 — 투자위원회(BoI)

[Cont. from page 1]

그는 필리핀의 1억1,4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이자 젊은 인구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가 아세안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 분야에서도 대체적인 저비용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비용과 풍부한 노동력, 특히 저렴한 비용의 엔지니어 인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필리핀은 세계 주요 소비재 기업들의 매출 기준으로 10번째로 큰 시장으로, 특히 신선식품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생산시설을 두기에 적합합니다.”

필리핀 개발연구원(PIDS) 선임연구원 존 파올로 R. 리베라는 아세안 국가들의 증가하는 투자가 역내 통합 심화와 아세안 역내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필리핀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생산 역량의 이전,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역내 헤징,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이 주요 동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을 포함한 주요 교역 파트너국의 상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리베라 연구원은 또한 필리핀의 “빌드 베티어 모어(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에 따른 인프라 개발이 역내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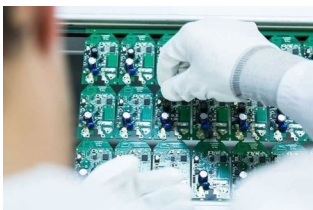
그는 “더 나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체계는 아세안 기업들이 필리핀을 제조, 물류, 서비스 확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장점들은 끊이지 않는 부패 문제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9/03/695379/phl-attracting-more-investments-from-asean-neighbors-boi/>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떠오르는 반도체 허브 중 하나’

September 03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In its latest sector review, Moody's said the Philippines, alongside Malaysia and Vietnam, is playing a bigger role in the global chip supply chain as multinational firms diversify operations amid United States-China trade tensions and calls to strengthen supply chain resilience.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성장하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허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상품 수출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무디스 레이팅스(Moody's Ratings)가 밝혔다.

무디스는 최신 산업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요구 속에서 운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가 조립, 테스트, 패키징 등 후공정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지만, 무디스는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가치사슬 상위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술적 격차가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며, 연구개발(R&D), 인재, 인프라 측면의 취약성을 꼽았다.

무디스에 따르면, 아시아는 여전히 전 세계 반도체 제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웨이퍼 첨단 제조, 소재, 조립을 아우르는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생산 이전 노력과 중국의 자급자족을 향한 강화된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외 지역으로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이전은 비용상의 이점과 이미 구축된 생태계 때문에 여전히 “상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핀에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전자제품 수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기기, 자동차,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Cont. page 3]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떠오르는 반도체 허브 중 하나’

[Cont. from page 2]

그러나 무디스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물류 병목 현상, 제한적인 투자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가 필리핀이 반도체 제조 및 설계 분야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 활동을 유치하는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디스는 이 지역이 2032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후공정 생산 능력의 약 2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현재 수준에서 상승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도 다국적 기업들에게 비용 경쟁력이 있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개발, 혁신, 그리고 보다 강력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개혁이 없을 경우 동남아시아 경제는 반도체 가치사슬 내에서 저마진·노동집약적 부문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9/03/2469958/philippines-among-southeast-asias-rising-semiconductor-hubs>

마르코스 “현대 조선소 부활로 필리핀, 글로벌 조선 강국 지위 회복할 것”

September 03, 2025 | Jocelyn Reyes | Malaya Business Insight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화요일, 잠발레스 수빅에 있는 HD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부활을 주재하면서 필리핀의 글로벌 조선업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HD현대중공업 필리핀 법인 조선소 준공식에서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 동안 필리핀은 세계에 가장 우수한 선원을 배출해왔다. 이제는 세계가 향해할 훌륭한 선박 또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우리는 세계 주요 조선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시작한다”며, 조선업의 부활은 산업의 강화, 더 많은 필리핀 국민의 생계, 그리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내 조선업과 숙련된 필리핀 선원 인력을 결합하면 필리핀이 “완전한 해양 국가(complete maritime nation)”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은 연간 120만~200만 총톤수(GT)의 선박을 생산했으며, 이는 유조선 약 20척 또는 대형 컨테이너선 30척에 해당한다.

그러한 상승세는 2019년에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약화되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돛을 올린다”며, 현대의 투자자 수빅의 조선 능력을 130만 제화중량톤(DWT)에서 250만 제화중량톤으로 확대시켜, 연간 대형 유조선 4~5척에서 최대 8척까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선소 확장이 2030년까지 4,300명의 필리핀인을 고용해 수천 가정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이제 건조하는 선박들은 규모를 넘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증대와 필리핀 노동자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소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교육기술개발청(TESDA)은 숙련된 필리핀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TESDA는 2024년 11월 현대와 함께 수빅에 훈련 허브를 설립했으며, 이후 고급 용접 과정을 포함한 16개 해양 관련 분야에서 장학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글로벌 조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to-reclaim-global-ship-building-status-with-hyundai-shipyard-revival-marcos/>

하원 위원회, 부가가치세 인하 제안 검토

September 03, 2025 | Jovee Marie N. de la Cruz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필리핀 가계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탕가스주 레안드로 레비스테(Leandro Leviste) 의원은 2025년 부가가치세 인하법(VAT Reduction Act of 2025, 하원 법안 4302)에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매년 2,000억 페소 이상 줄어들 수 있지만, 가구당 약 7,000페소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어서 서민과 중산층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 이를 낮추는 것은 조세 제도를 보다 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Cont. page 4]



President Marcos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executives lead the rites marking the revival of Subic's shipyard under HD Hyundai Heavy Industries. Photo courtesy of the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하원 위원회, 부가가치세 인하 제안 검토

[Cont. from page 3]

수요일 브리핑에서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로미로 김보(마리키나 대표)는 해당 법안을 환영하며 위원회가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 위원장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조세 제도를 더 누진적으로 만드는 모든 이니셔티브를 위원회가 철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과 관세청(Bureau of Customs)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05년 확장부가가치세법(Expanded VAT Law) 아래 세율이 12%로 인상되었을 당시 1,566억7,000만 페소에서 2024년 1조2,000억 페소로 약 8배 급증했다.

현재 12%의 세율은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교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10%, 인도네시아는 11%, 싱가포르 9%(GST), 태국은 7%를 부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라오스·미얀마는 5~7% 수준이다.

법안에는 안전장치 조항도 포함돼 있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목표를 초과할 경우 재무부와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세율을 다시 12%로 되돌릴 수 있다.

경제 분석가들은 최근 조사에서 물가 상승이 필리핀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로 꾸준히 꼽혀왔다고 지적한다. 2025년 7월 필리핀 통계청(PSA)은 인플레이션율이 4.1%로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보고했다.

레비스테 의원은 소비 증가와 세금 준수 향상으로 상당 부분의 세수 부족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를로 아드리아노 재무부 차관은 부가가치세가 역진적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내재적 면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식품과 농산물과 같은 필수재에 면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 제도가 지나치게 역진적으로 흐르지 않고, 이상적으로는 누진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가가치세율이 인하되면서도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지 않고 공공지출을 위축시키지 않는 대체 세원 조치가 병행된다면, 필리핀의 조세 체계는 더욱 누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03/house-panel-reviewing-vat-decrease-proposal/](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03/house-panel-reviewing-vat-decrease-proposal/)

재무부, 의회에 핵심 세제 개혁 우선 추진 요청

September 04, 2025 | Kenneth Christiane L. Basilio | BusinessWorld

재무부(DoF)는 정부의 재정 통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20대 의회가 여러 세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 재무부 관계자가 수요일 밝혔다.

재무부의 카를로 페르민 S. 아드리아노 차관은 필리핀 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추가 과세(domestic top-up tax)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물품세, 그리고 일반 조세 및 상속세 사면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정부 부채를 줄이고, 세계적인 불확실성, 변화하는 교역 관계,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국가 지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드리아노 차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여전히 약 61~62% 수준이며, 위기 발생 시 재정적 완충 장치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재정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공공 부채로 이미 제한된 재정 여력이 더 큰 압박을 받으면서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63.1%로 상승해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다자간 대출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60% 기준을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Cont. page 5]



Workers clean and segregate assorted plastic bottles inside a junk shop in Tondo, Manila.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n excise tax on single-use plastics as a way to reduce the use of plastic.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STAR / File

재무부, 의회에 핵심 세제 개혁 우선 추진 요청

[Cont. from page 4]

아드리아노 차관은 재무부(DoF)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물품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필리핀이 전 세계 수계(물길)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드리아노 차관은 재무부(DoF)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킬로그램당 150페소의 세금을 부과하고 매년 4%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반투명 비닐봉지나 산도백(sando bag)과 같은 일회용 비닐봉지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드리아노 차관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물품세를 시행할 경우, 첫 5년 동안 연평균 115억9,000만 페소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재무부(DoF) 관계자는 또한 전 세계 매출이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에서 7억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국내 보충세(domestic top-up tax) 15%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의 당사국으로, 100개국 이상이 서명했으며, 여기에 15% 글로벌 최저한세(GMT) 도입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아드리아노 차관은 GMT 체계 부재로 인해 필리핀이 2021년 글로벌 시행 이후 매년 약 1,629억 페소의 세수를 손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보충세 제도를 입법화하지 않으면 징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국내 보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다국적 기업들은 그곳에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다국적 기업의 대부분은 일본 기업이며, 그 뒤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기업이 잇고 있다.

레예스 타칸동엔코(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 조너선 L. 라벨라스는 “세제 제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지만,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위험 속에서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물품세와 국내 보충세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며, 세수 증대와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는 신속한 시행과 강력한 집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세금 사면(Tax Amnesty)

재무부는 또한 미납된 소득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목에 대해 일반 세금 사면을 제안하고 있으며, 세율은 2024년 12월 기준 납세자의 총자산의 2% 또는 순자산의 5%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 역시 2024년까지의 납세자 총자산을 기준으로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세금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납입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며, 세금 사면 제안에 따르면 5% 또는 10만~100만 페소의 고정 금액 중 하나로 책정될 수 있다고 재무부 유비밀 니나 R. 아순시온 국장이 밝혔다.

아순시온 국장은 같은 청문회에서 “사면 적용 연도에 대해서는 국세청(BIR)의 회계장부 조사가 없을 것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민사·형사·행정상 제재로부터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 제안된 일반 세금 사면 시행 첫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는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36개월 차에는 15%, 69개월 차에는 10%로 할인율이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순시온 국장은 “일반 세금 사면에서 제외되는 납세자는 대통령부산정치위원회(PCGG) 관할 사건, 반부패, 자금세탁, 조세포탈 관련 미결 사건이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만료된 상속세 사면을 다시 추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는 이를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Cont. page 6]

재무부, 의회에 핵심 세제 개혁 우선 추진 요청

[Cont. from page 5]

아순시온 씨는 상속세 사면이 2024년 5월 기준으로 미납 세금이 있는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세율은 6%로 유지되며, 2024년 5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월드가 입수한 국세청(BIR)의 의원 대상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상속세 사면을 통해 42,373명의 납세자로부터 13억6천만 페소를, 2023년에는 51,400명의 납세자로부터 18억9천만 페소를, 2024년에는 56,901명의 납세자로부터 26억6천만 페소를 각각 징수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92,066명의 납세자로부터 약 41억8천만 페소가 징수됐다.

부가가치세 인하

한편, 재무부의 아드리아노 차관은 현행 12%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0%로 낮추려는 하원 제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탕가스의 레안드로 안토니오 L. 레비스테 하원의원은 현행 세제가 “역진적”이라며 조세 체계를 보다 누진적으로 만들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요일 하원 법안 제4302호(HB 4302)를 발의했다.

아드리아노 차관은 비즈니스월드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큰 영향이다”라며 “손실을 상쇄할 새로운 세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십억 페소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BIR)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670억 페소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연간 목표치인 4,730억 페소에 근접한 수준이다.

아드리아노 차관은 “VAT는 역진적이라는 가정이 있다. 하지만 면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VAT는 누진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예를 들어, 식품과 농산물은 VAT가 면세되며, 이는 최빈곤층 가게 지출의 약 40~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HB 4302호는 재정적자가 계획된 적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1년간 부가가치세율을 다시 12%로 복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직 기업인이었던 레비스테 의원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부유세(wealth tax)”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세수 중립적인(revenue-neutral) 법안으로 만들고 싶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더 누진적인 부유세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빈곤층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대신, 가장 부유한 필리핀인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비스테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SP 뉴에너지 코퍼레이션(SPNEC)의 지분을 처분했다. 그는 SPNEC 주식 164억4천만 주를 약 204억9천만 페소에 매각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9/04/695689/dof-asks-congress-to-prioritize-key-tax-reforms/>

마르코스, 광업 산업 강화 재정 제도 법안 서명

September 04, 2025 | Luisa Cabato | Inquirer.net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signs into law the 'Enhanced Fiscal Regime for the Mining Industry Act' in a ceremony at Malacañang on Thursday, September 4, 2025. — Screenshot from Bongbong Marcos/Facebook

마닐라, 필리핀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목요일 “광업산업을 위한 강화된 재정 체계법(Enhanced Fiscal Regime for the Mining Industry Act)”에 서명하여 대규모 금속광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재정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의 공정한 수익 배분을 보장했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 공화국법(Republic Act, RA) 제12253호로 알려지며, 마라카냐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광물 보호구역 밖의 금속광업 수익에 대해 1%에서 5%까지 적용되는 5단계 마진 기반 로열티 부과이며, 마진 기준치 이하의 광산에 대해서는 총 산출량의 최소 0.1% 로열티가 적용된다.

[Cont. page 7]

마르코스, 광업 산업 강화 재정 제도 법안 서명

[Cont. from page 6]

또한 이 법은 광업 소득에 대해 1%에서 10%까지 적용되는 5단계 마진 기반 초과이익세(windfall profits tax)를 도입하고, 과도한 관련자 차입 비용의 세금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자본 비율을 2:1로 제한하는 소위 ‘얇은 자본 규정(thin capitalization rule)’을 시행한다.

이 조치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250억8천만 페소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약 62억6천만 페소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das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45111/signing-of-enhanced-fiscal-regime-for-the-mining-industry-act>

[다가오는 행사]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2012년부터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Arangkada Philippines Forum)은 필리핀의 투자, 경제 개혁, 포용적 성장에 관한 고위급 대화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연례 포럼은 2025년 9월 25일~26일 파사이시 메리어트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언론계의 수백 명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투자를 유치·유지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합동외국상공회의소)가 선정한 7대 “빅 위너(Big Winner)” 부문인 농업, 인프라, 제조·물류, 관광, 전략 광물, 창의 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에는 정부와 경제계 주요 인사의 기조연설과 7대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분과 토론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 및 기업-정부 간의 독점적인 네트워킹 기회, 전시 부스에서의 실시간 제품 및 비즈니스 시연, 그리고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산업 세션이 마련되어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와 후원 관련 안내는 아랑카다 필리핀 브리퍼(Arangkada Philippines Briefer), 후원 등급표(Sponsorship Tier) 및 확인서(Confirmation Form)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KCCP 사무국 (632) 8885-73-42번으로 전화하거나 info@kccp.ph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Links: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c_OGtu0y-PZCQvnmSbvt2Xuraw/viewfor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RICKY CARANDANG
HEAD OF EXTERNAL
AFFAIRS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ANDREW JEFFRIES
COUNTRY DIRECTOR FOR
THE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ATTY. ELAINE COLLADO
COUNTRY DIRECTOR
PHILIPPINES
VRIENS & PARTNERS



USEC. ASIS PEREZ
UNDERSECRETARY
DEPARTMENT OF
AGRICULTURE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MARICAR BAUTISTA
SPOKESPERSON FOR
BUSINESS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SATYA RAMAMURTHY
CHAIR PUBLIC SECTOR,
STRUCTURED FINANCE
DEPARTMENT ASIA PACIFIC
SMBC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PAO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IM WEI SIONG
VICE PRESIDENT,
GOVERNMENT AFFAIRS &
POLICY, ASIA PACIFIC
MASTERCARD



**GRACE MIRANDILLA-
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AFAEL ONGPIN
EXECUTIVE DIRECTOR
MAKATI BUSINESS CLUB



RONALD ACIO
SENIOR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GHD



**MONICA LORENZANA
TRAJANO**
VICE PRESIDENT FOR
COMMERCIAL STRATEGY
ABOITIZ INFRACAPITAL
ECONOMIC ESTATES



FRANCISCO MORENO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CCIONA SEA



**ENGR. EMMANUEL
CAGUIMBAL**
FOUNDER AND CEO
XPERTO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facebook.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https://www.instagram.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https://twitter.com/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linkedin.com/company/Arangkada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CO-PRESENT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